

## ‘갈등 광주’ 부끄럽다

### ‘도청별관’ 해법 또 무산 수수방관만 갈등 조정할 원로도 시스템도 없어

민주, 인권, 평화 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지역사회 의사결정·조정 능력이 실종돼 대형 현안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옛 도청 별관 해체를 반대하는 ‘옛 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 철거를 주장하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논란으로 최대 국제사업인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동안 지역 각계 원로, 자치단체 등 어느 누구도 광주의 미래를 우려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6월부터 불거진 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차질이 예고됐지만, 지역사회, 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적극 대응으로 무려 7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별관 문제는 문화전당 착공식이 지난해 6월 10일 열리자마자 돌출약재로 등장했다. 5월 단체들로 구성된 ‘옛 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같은 달 26일 전당 부지 내 별관철거를 반대하는 농성에 전격 돌입,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뒤물리기 시작했다.

공대위의 요구대로 별관원형을 보존한다면 문화전당 전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전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사업 추진주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공대위만 ‘별관 철거-원형 보존’입장으로 대립했을 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구심점이 없어 무려 5개월여를 허송했다.

이를 보다 못한 광주 시민단체 연합회와 광주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지난해 12월이 되어서야 중재에 나서 29일 공대위와 별관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만남 자체가 무산돼 사태 해결을 원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나마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공대위의 위임을 받아 중재를 맡게됐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29일로 예정됐던 공대위·시민단체의 만남이 무산돼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부분 지역민들은 “별관 논란의 장기화로 5월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데도 나서는 사람은 물론 책임질 공적 주체가 없다는 게 오늘 광주의 현실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취고 일적 중재에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도 “5월 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를 설득할 수 있는 지역의 원로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으나, 5월 희생자들을 의식한 탓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의 적극 대응도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별관 문제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최철 위원장이 만난 것은 이 문제가 해를 넘긴 지난 1월 5일이다. 지난해 12월초 아시아 전당 건립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뒤에 이뤄진 만남이어서 빛이 바랬다.

그나마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공대위의 위임을 받아 중재를 맡게됐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29일로 예정됐던 공대위·시민단체의 만남이 무산돼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부분 지역민들은 “별관 논란의 장기화로 5월 광주를 상징하는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데도 나서는 사람은 물론 책임질 공적 주체가 없다는 게 오늘 광주의 현실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취업 정보 검색 뜨거운 대학가 29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에 지리한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졸업과 신학기를 앞두고 취업정보와 각종 자료를 검색하려는 학생들이 이른 시각부터 몰리면서 200여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위직기자 jwi@

## 단독주택 공시가 첫 하락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광주광역시	
평균	-1.33
동구	-0.82
서구	-1.24
남구	-1.72
북구	-1.61
광산구	-0.98
전라남도	
평균	-1.54
목포시	-1.26
여수시	-0.61
순천시	-1.44
나주시	-1.34
광양시	-1.00
담양군	-1.19
곡성군	-1.61
구례군	-1.93
고흥군	-2.52
보성군	-1.98
화순군	-1.85
장흥군	-2.02
강진군	-1.89
해남군	-2.61
영암군	-1.94
영안군	-1.12
함평군	-2.43
영광군	-2.01
장성군	-1.55
완도군	-2.27
진도군	-2.11
신안군	-1.6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0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마저 떨어졌다는 점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98% 떨어졌다. 지난 2005년 1월 처음 공시된 뒤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올랐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처음 하락한 것.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고 광주는 1.33%, 전남은 1.54%가 떨어졌다.

광주·전남지역 표준주택 중 4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은 광주에만 2가구로, 최고가격은 4억2천300만원으로 평가된 남구 월산동 가옥이다. 광산구 월곡동 단독 주택이 두 번째로 높은 4억2천200만원으로 평가됐다. 가장 싼 곳은 광주는 431만원으로 평가된 남구 구소동 주택, 전남은 66만8천원으로 평가된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농가주택이다.

가격대별로는 2천만~5천만원 이하 주택이 8천89가구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1천만~2천만원 이하(3천656가구), 5천만~1억원 이하(3천332가구) 등이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농업법인도 상장·대기업 축산업 투자 가능 전남 영세 농가 위축 우려

농림식품부는 29일 농업회사법인 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본을 끌어들이고,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농업의 기업화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남지역 소규모 농가들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남 인구의 23.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경지면적 또한 전국의 17.7%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자본 제한(비농업인의 지분이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의 농업법인은 작년 말 기준 2천89개(영농조합법인 1천954개·농업회사 135개)소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도 폐지된다. 지금은 양돈업의 경우 어미 돼지가 500마리 이상일 경우, 양계업은 닭이 5만 마리 이상일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막았다.

또 ‘농림수산물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을 총괄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친환경 농업이 집중 육성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비중도 3.5%에서 10%로 확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2년 5월 개관 불가”

### 이병훈 추진단장 “별관 문제 2월내 풀려야 2012년 연말 개관 가능”

옛 전남도청 별관 해체 논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오는 2012년 5월로 잡혔던 문화전당 개관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9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09년도 역점사업 발표회’에서 “당초 5월 하순 추후 중간과 여성엑스포

개막(2012년)에 맞춰 문화전당을 오픈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으나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별관 일부를 보존하려고 건물에 손을 대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게 별관 설계자의 판단”이라며 “2월 안으로 별관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2012년 연말 개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 별관 문제는 2월 초 매듭지어질 것이다”며 “철거를

반대하는 공대위와는 정서적으로 5·18정신을 기리는데 공감할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별관 철거를 반대하는 ‘옛 도청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검토 중인 ‘일부 존치안’과 관련, “공대위가 협상을 위한 박주선(민주·광주 동구) 의원에 게 최종안을 넘길 경우 그 안을 갖고 협상하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학교  
www.nab.ac.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배재빌 5층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62-722-0100